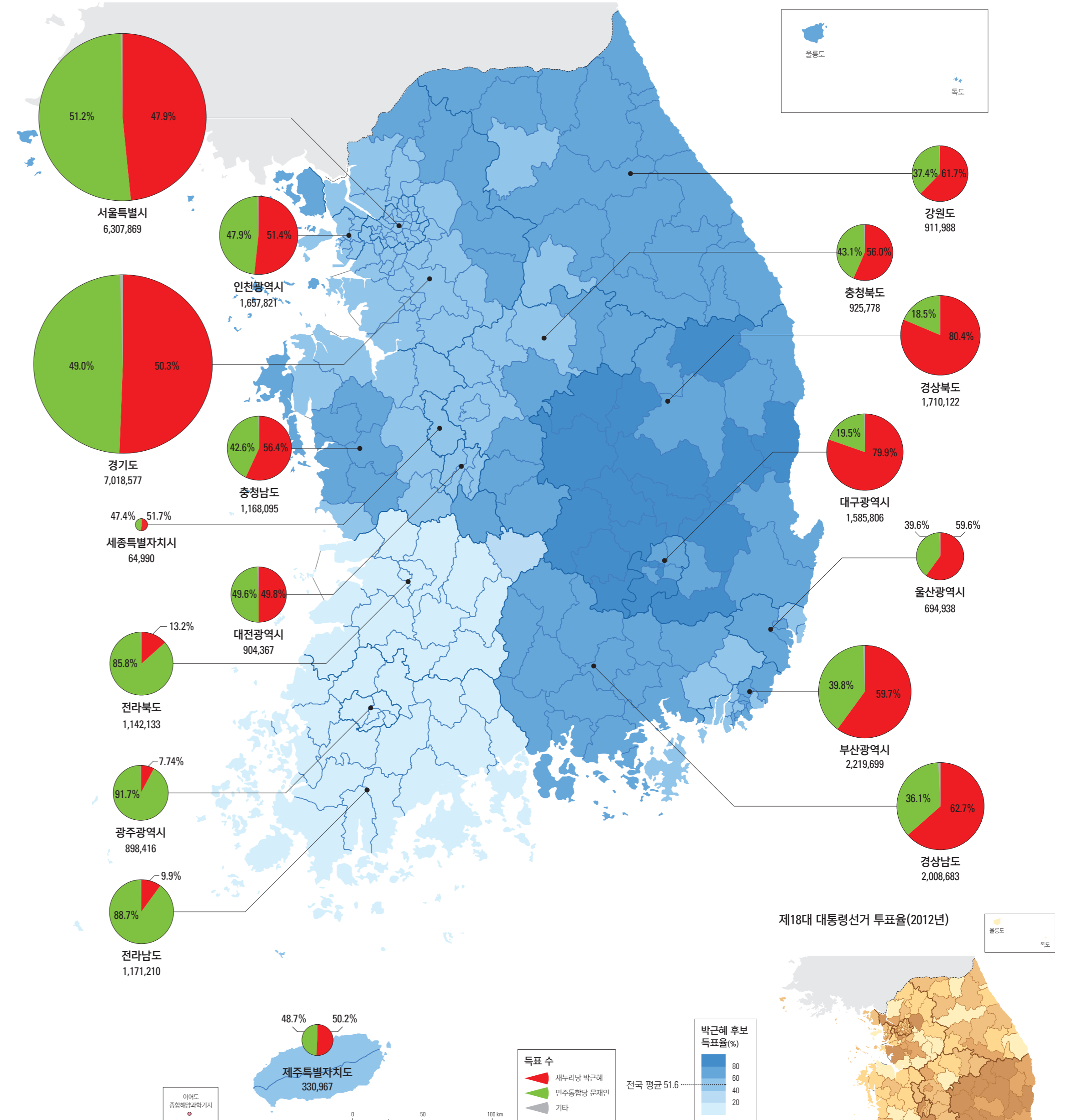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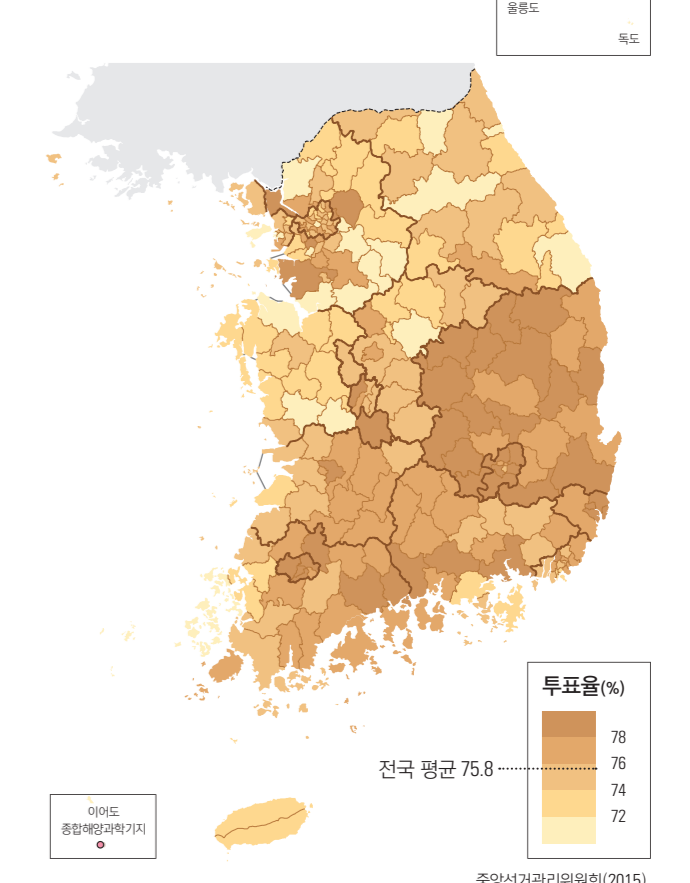
정치

대통령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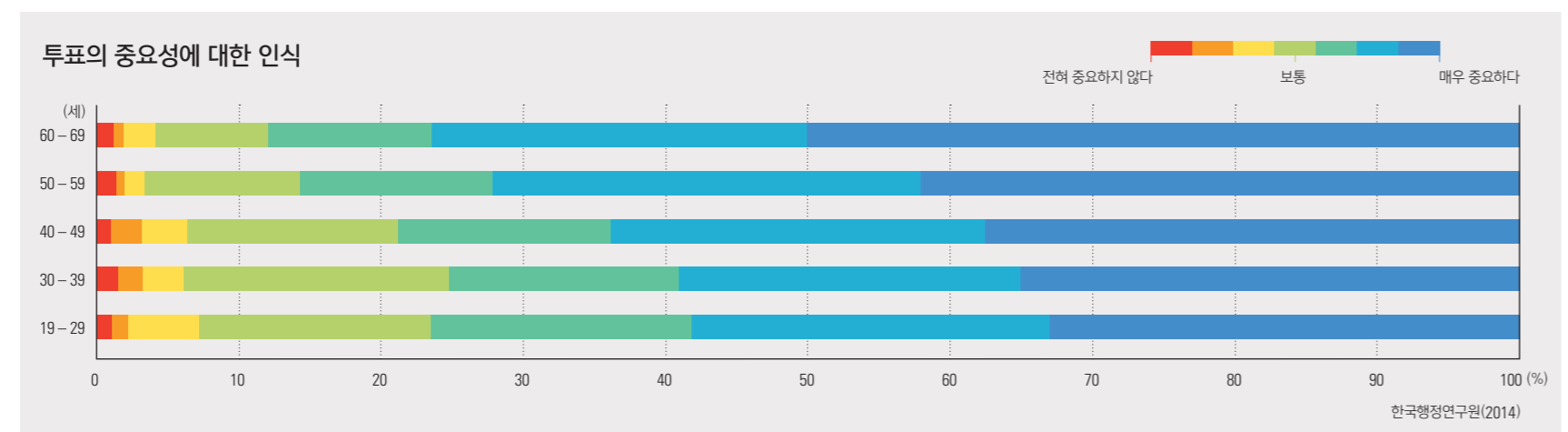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성취는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커다란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취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의 형태와 선거 제도에는 여러 차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중심제 위주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때로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적도 있었다. 대통령선거는 간선제를 채택한 시기 도 있었으나, 현재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 제도도 여러 차례 변화하였고, 인구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선거구가 통합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

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지역의 최다 득표자 1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과 함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과 도지사, 군수 등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행정 구역별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의 필요한 의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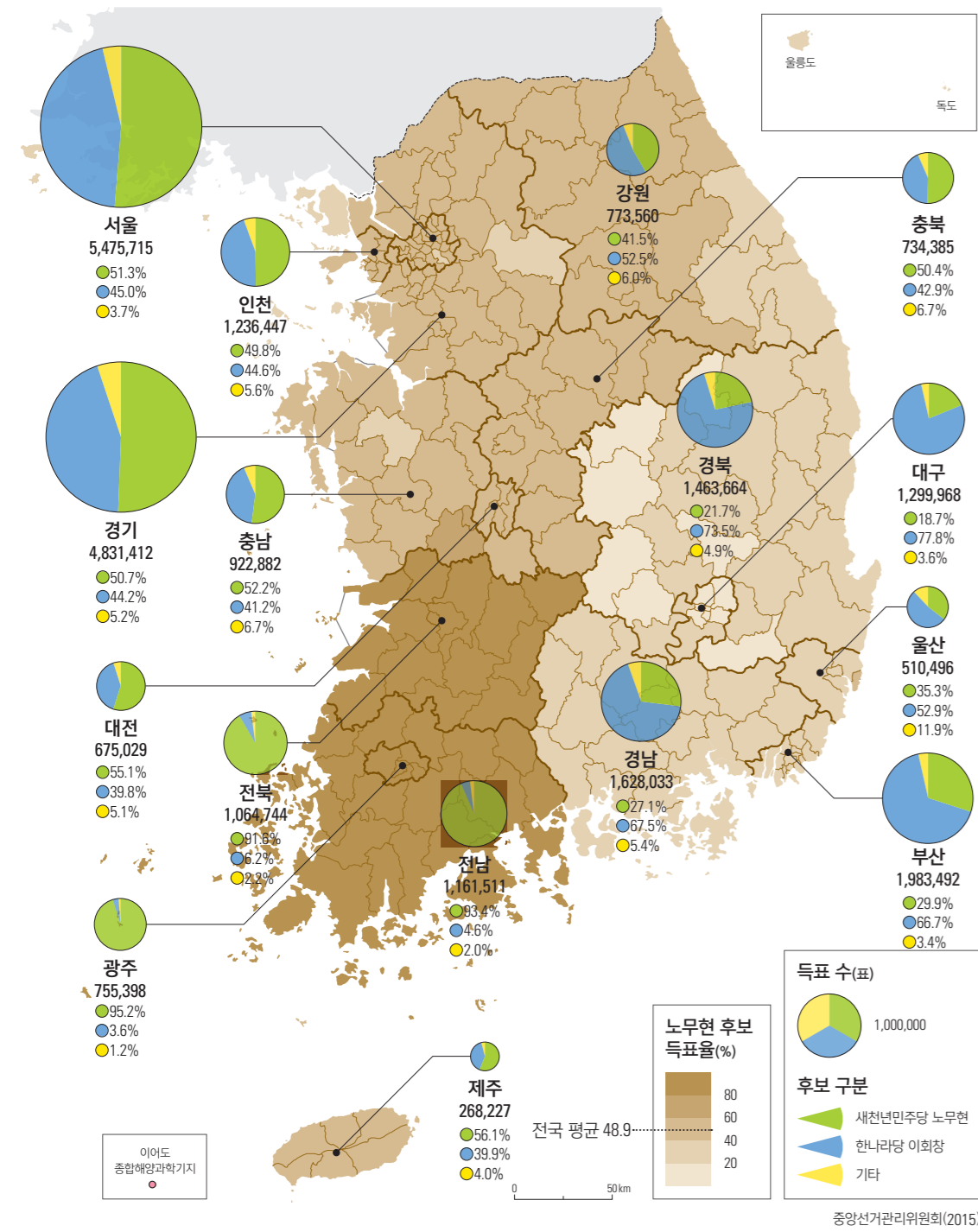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함께 무소속의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새누리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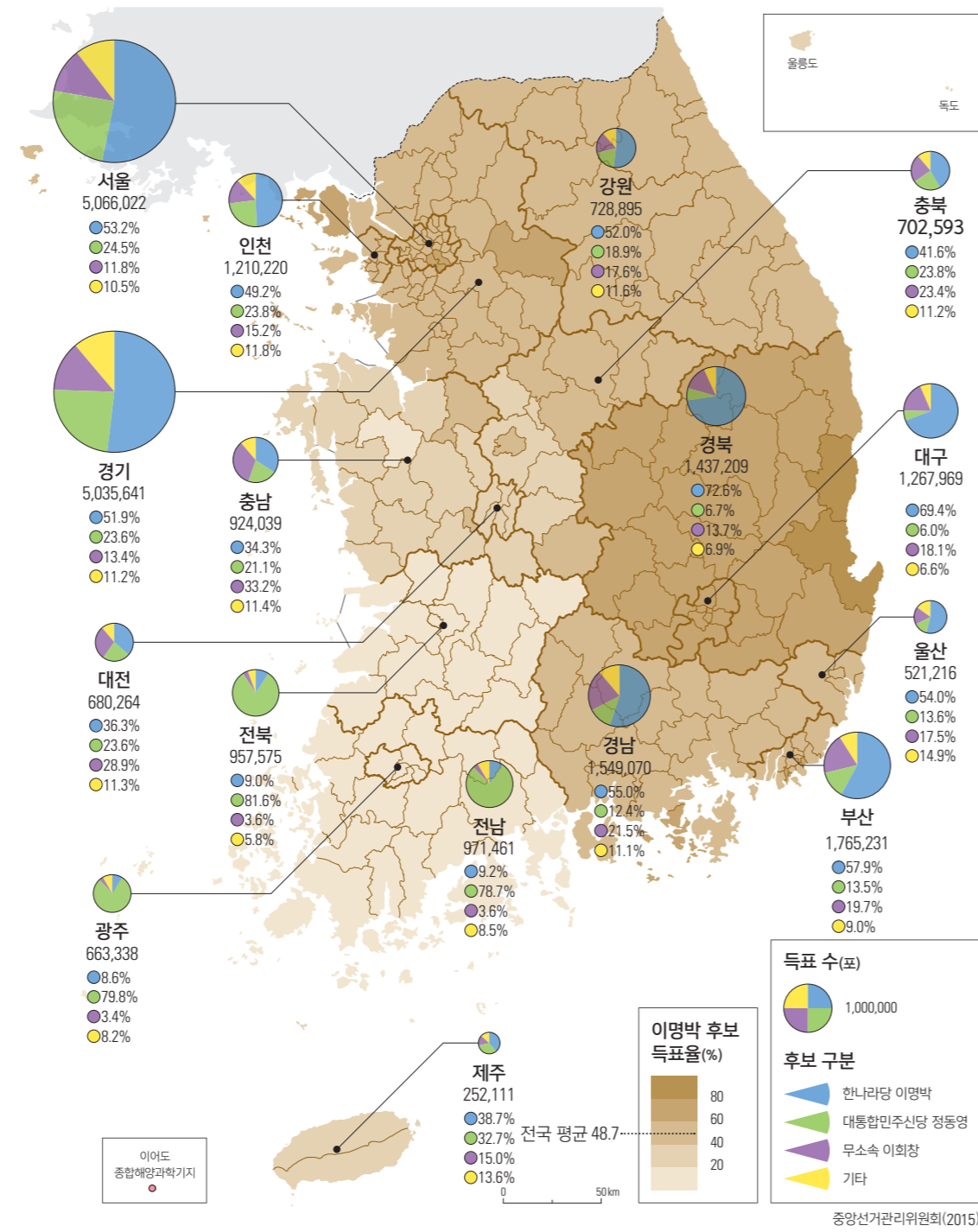
박근혜 후보가 51.55%,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48.02%를 득표하여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와 보수 성향의 후보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세대별, 도·농별, 계층별, 성별 투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 투표

와 함께 세대별 투표의 경향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지역별·세대별 투표율의 차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과 장년층의 투표율이 젊은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농촌 지역의 투표율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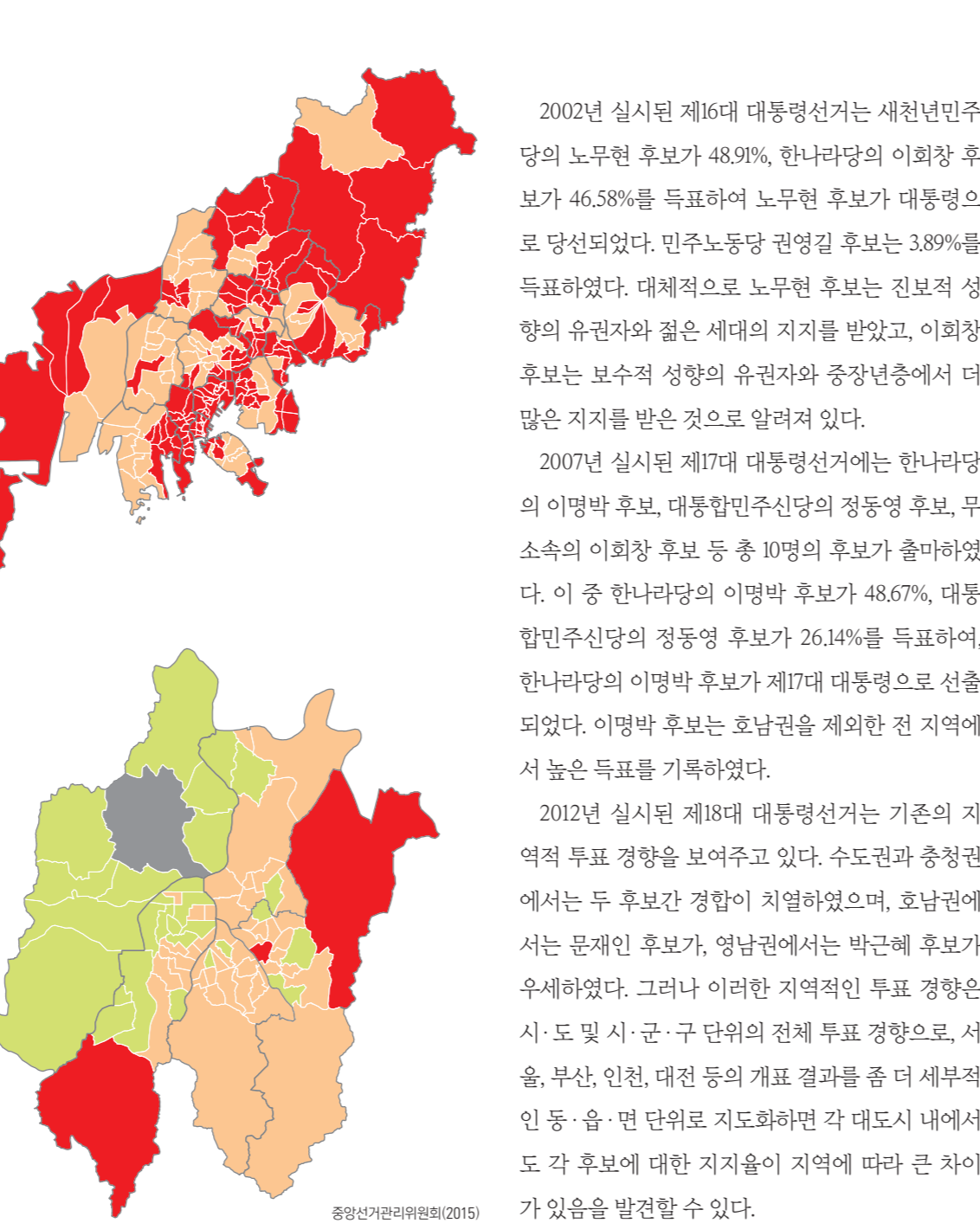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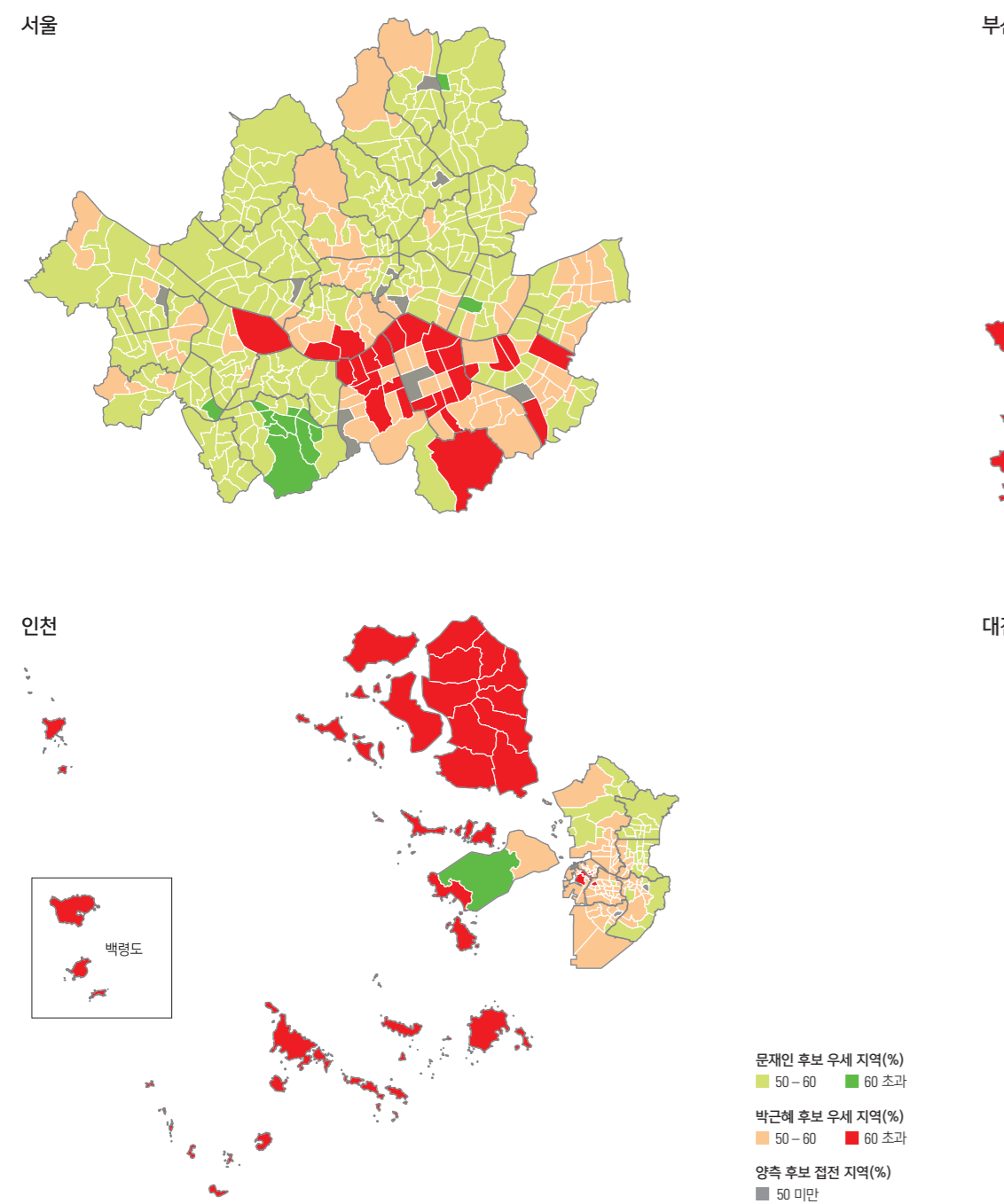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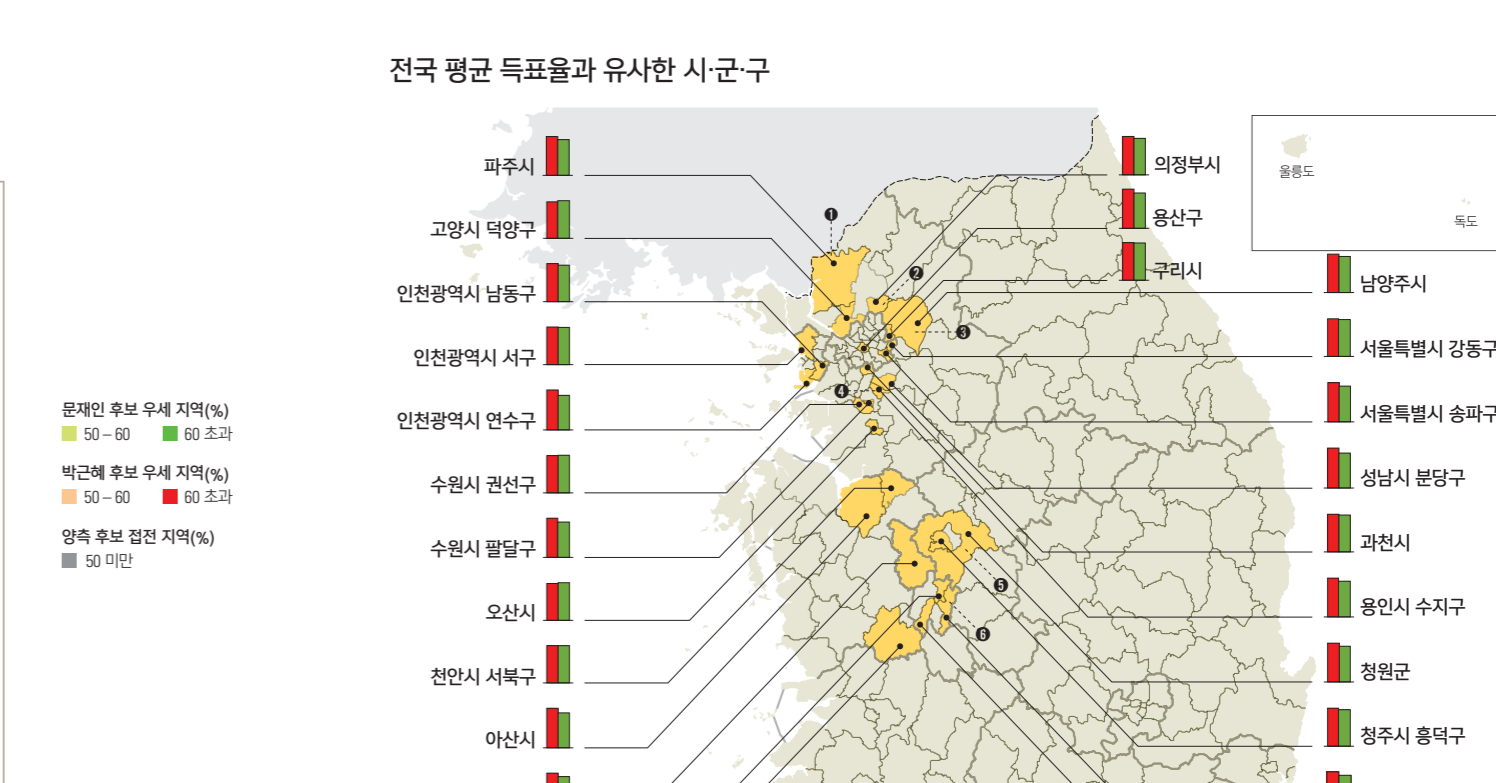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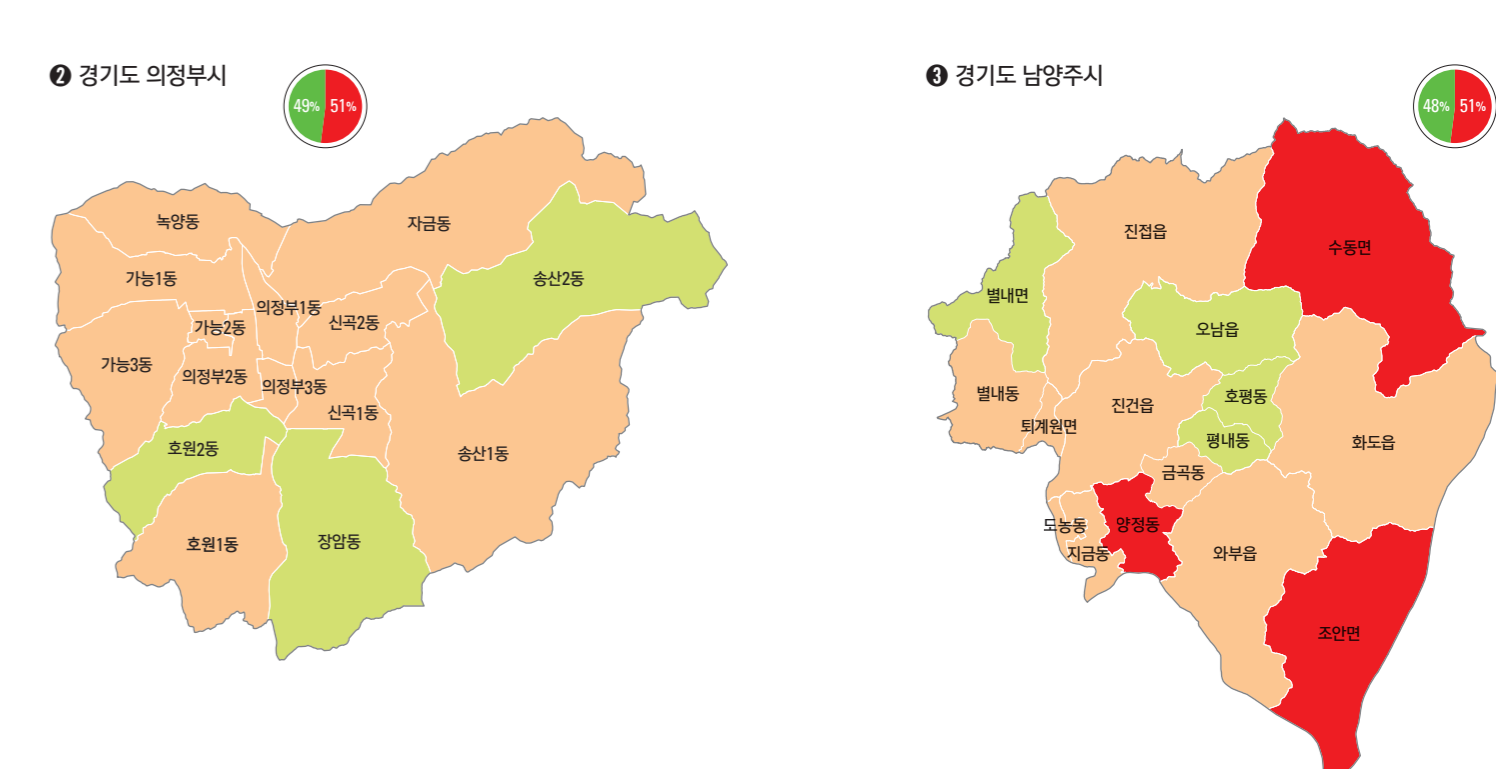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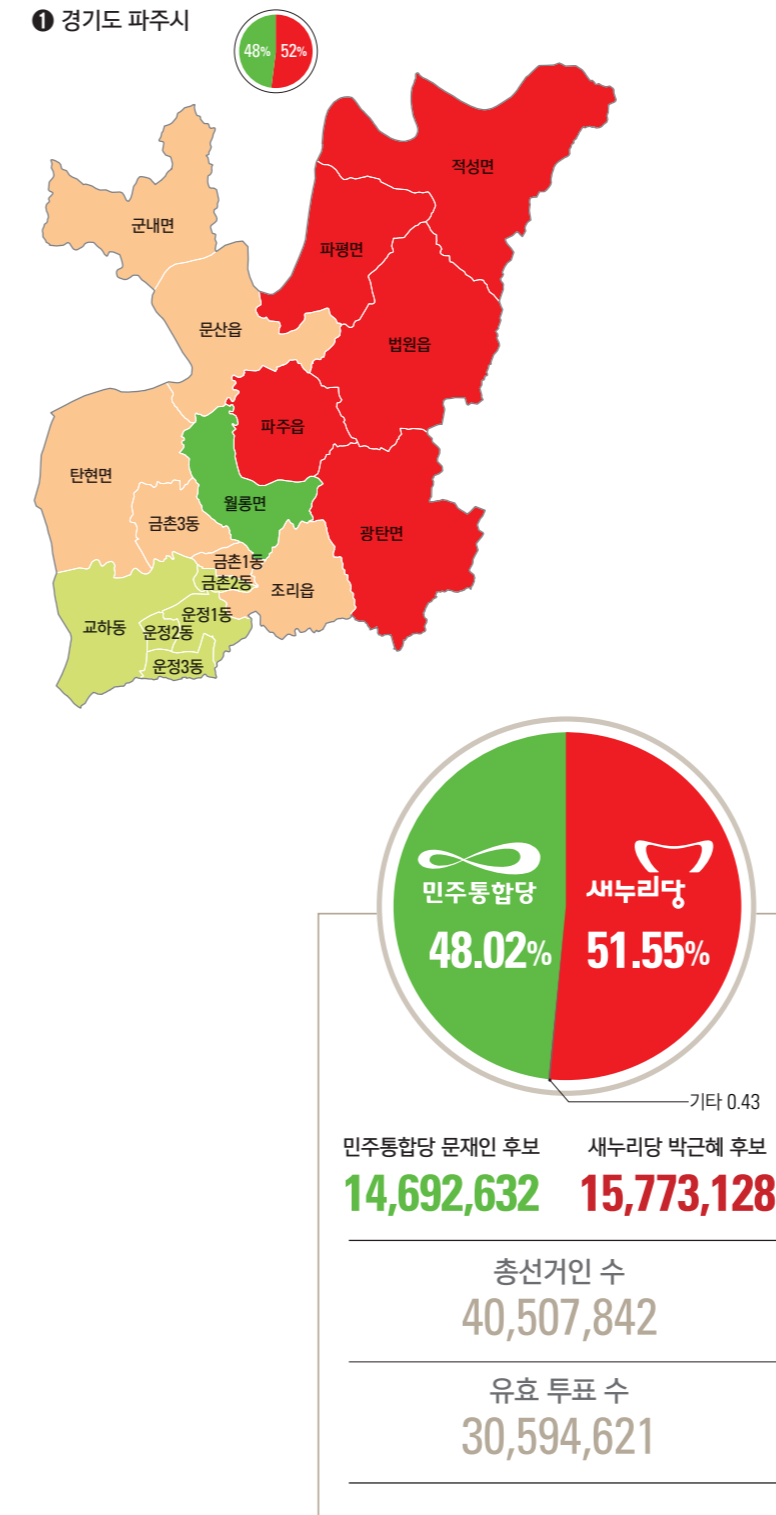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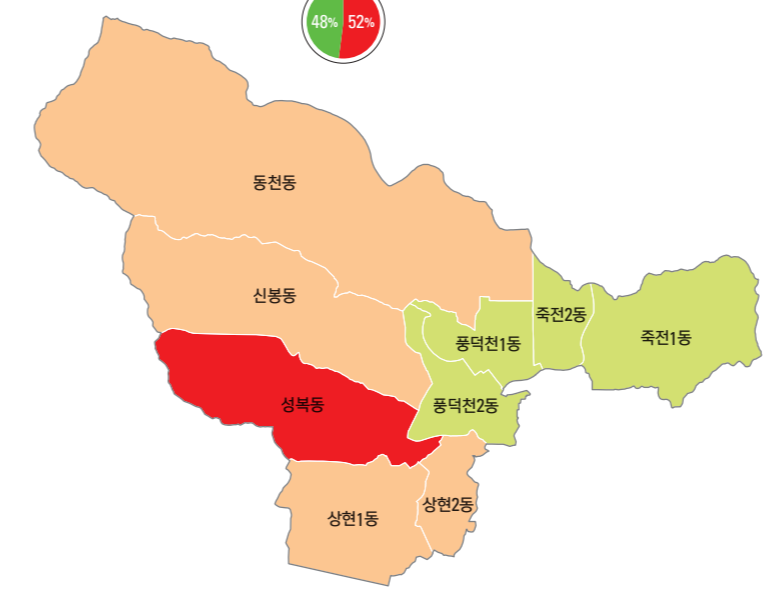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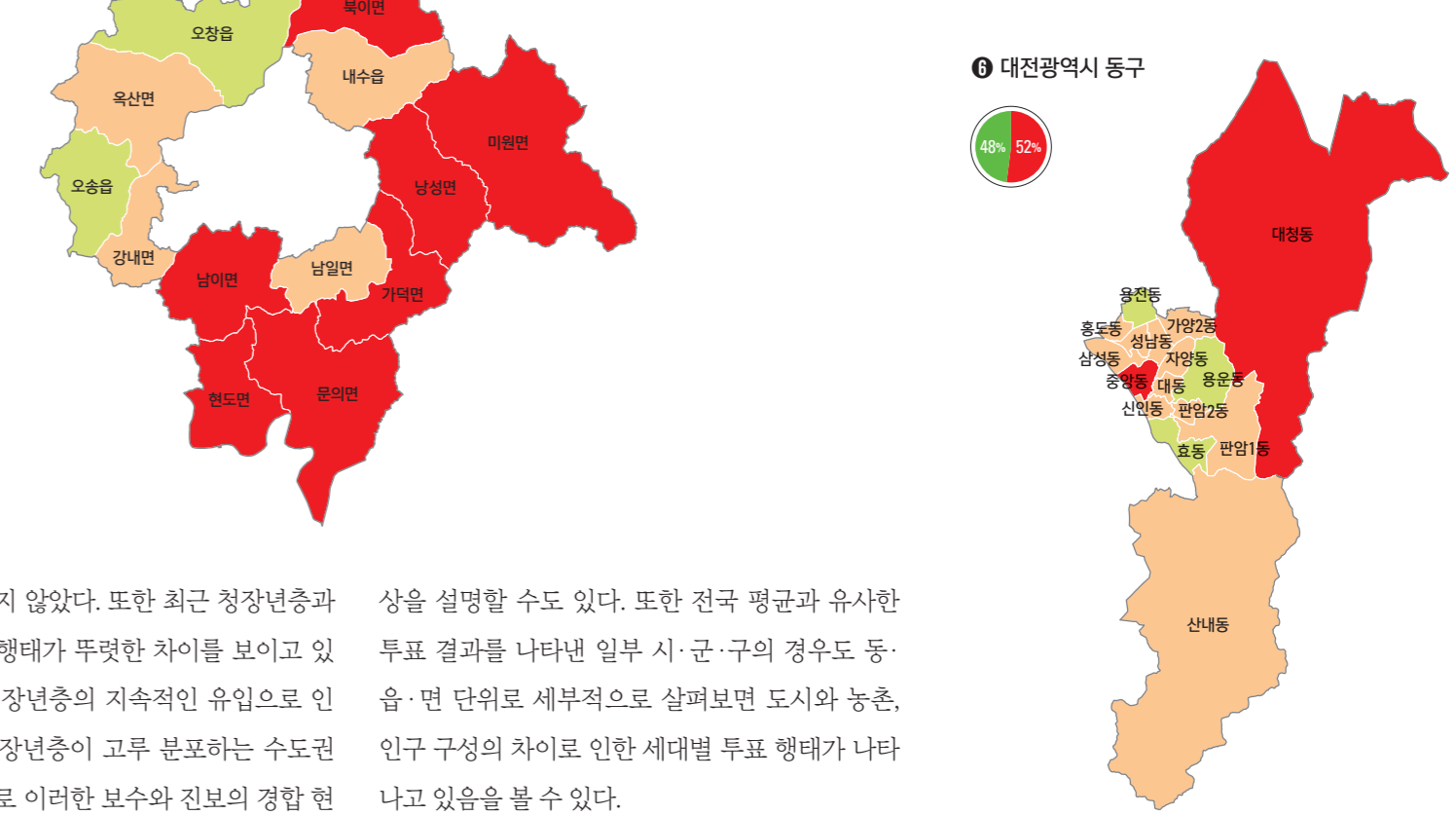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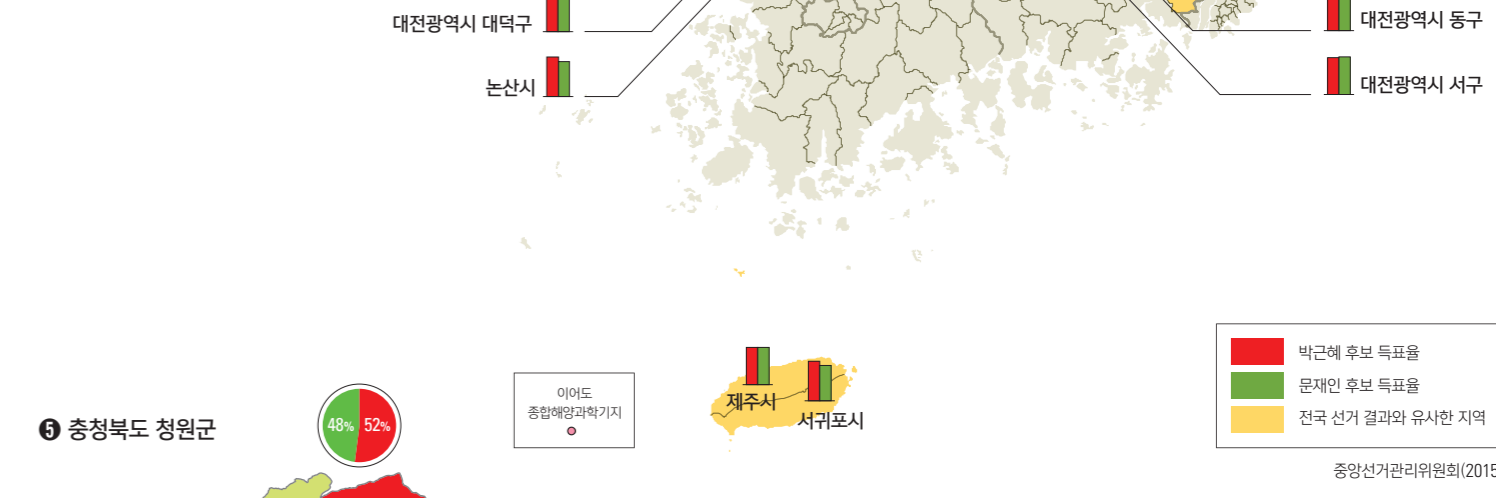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2012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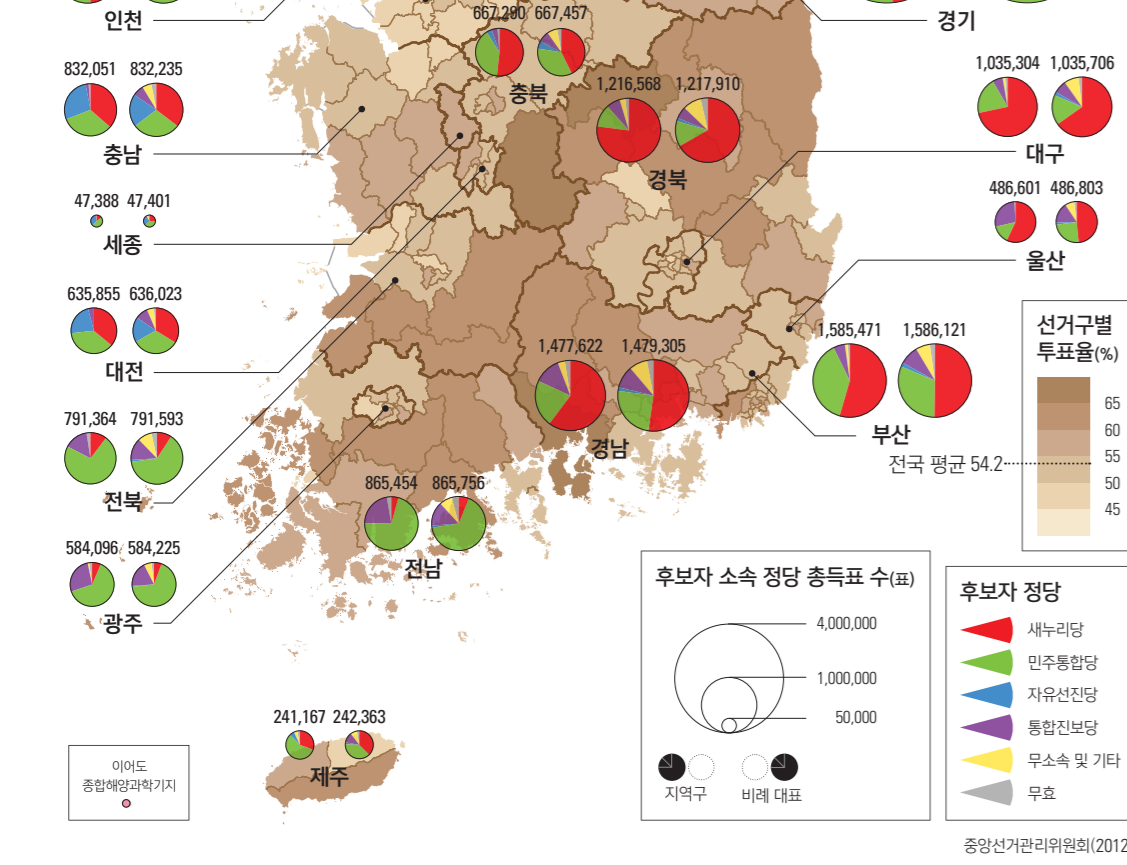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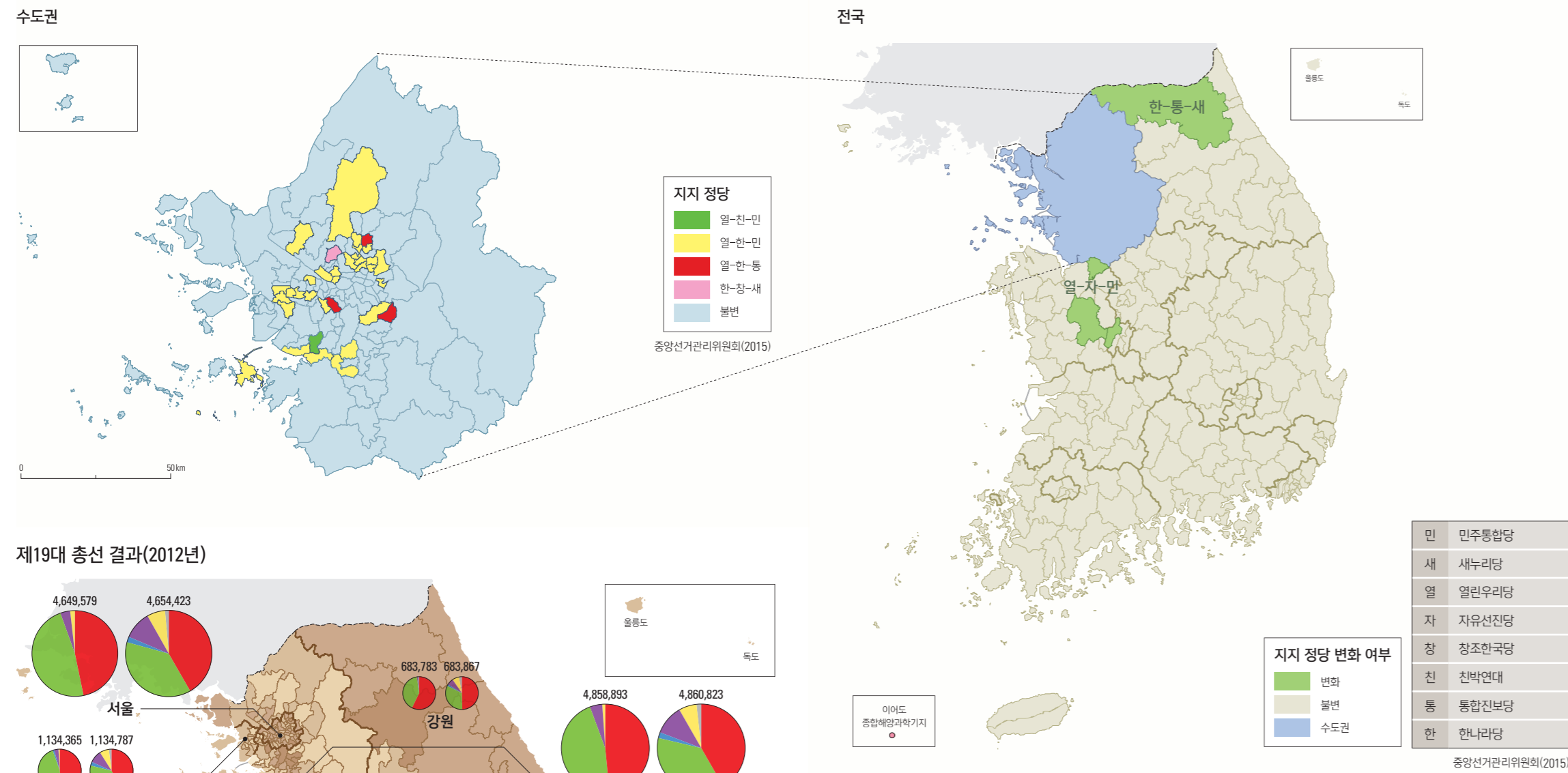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총유효 투표의 51.5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02%를 득표하였다. 전국 선거 결과와 유사한 투표 결과를 보인 곳은 경기도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 있고, 충청북도 청원군과 대전광역시 동구 등도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국 투표 결과와 유사한 시·군·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수도권의 투표 경향은 보수와 진보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 투표 경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어느 한 당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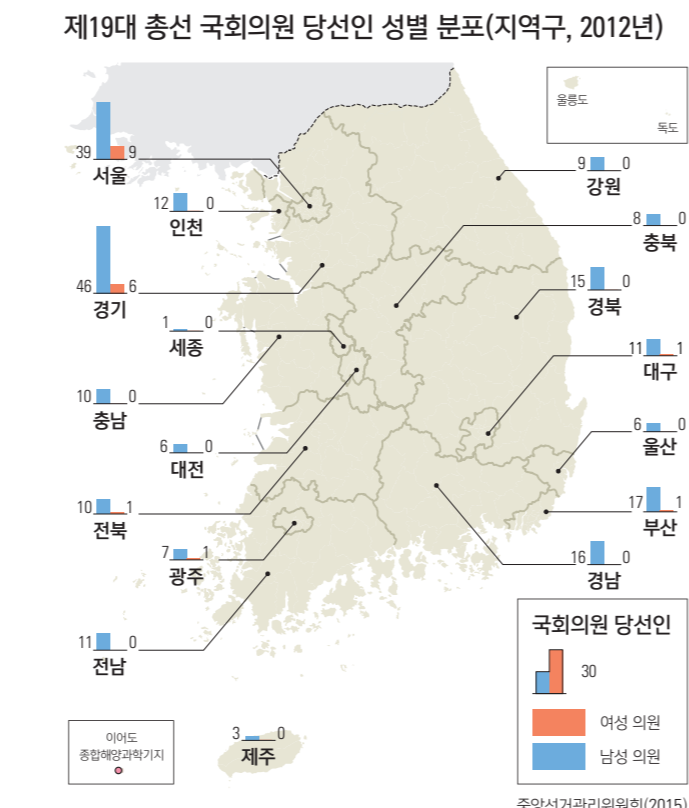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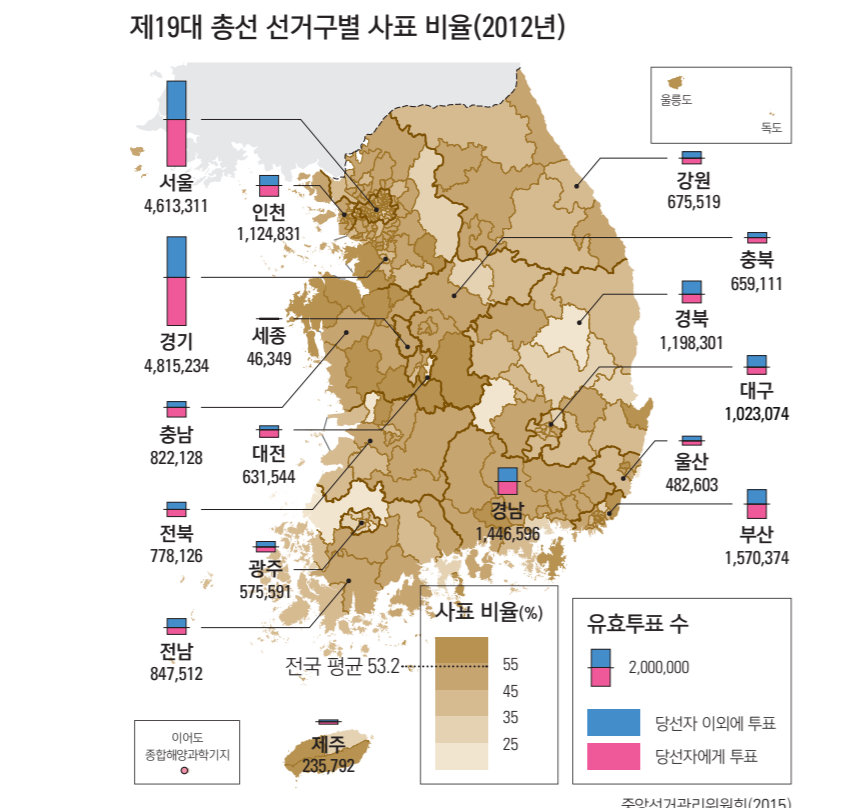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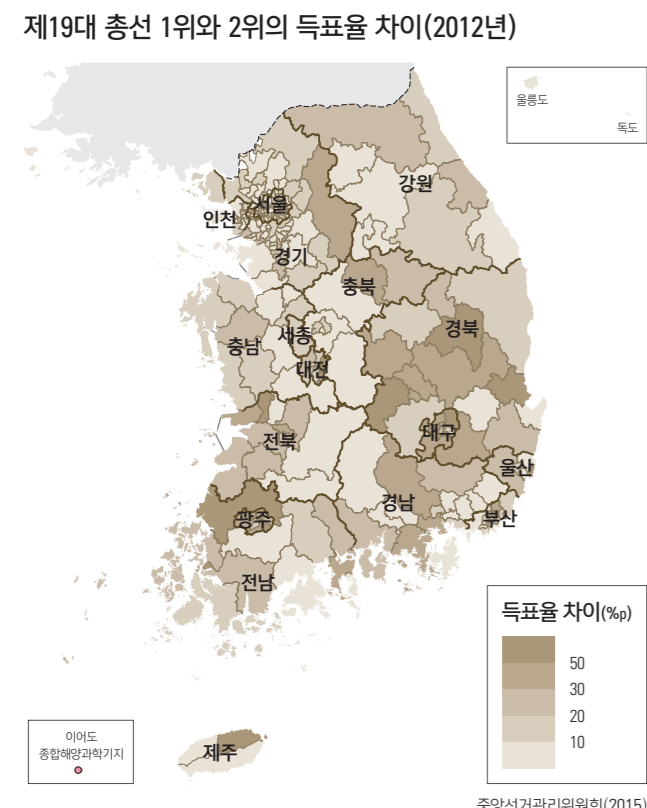
국회의원선거

정당 지지 변동이 많은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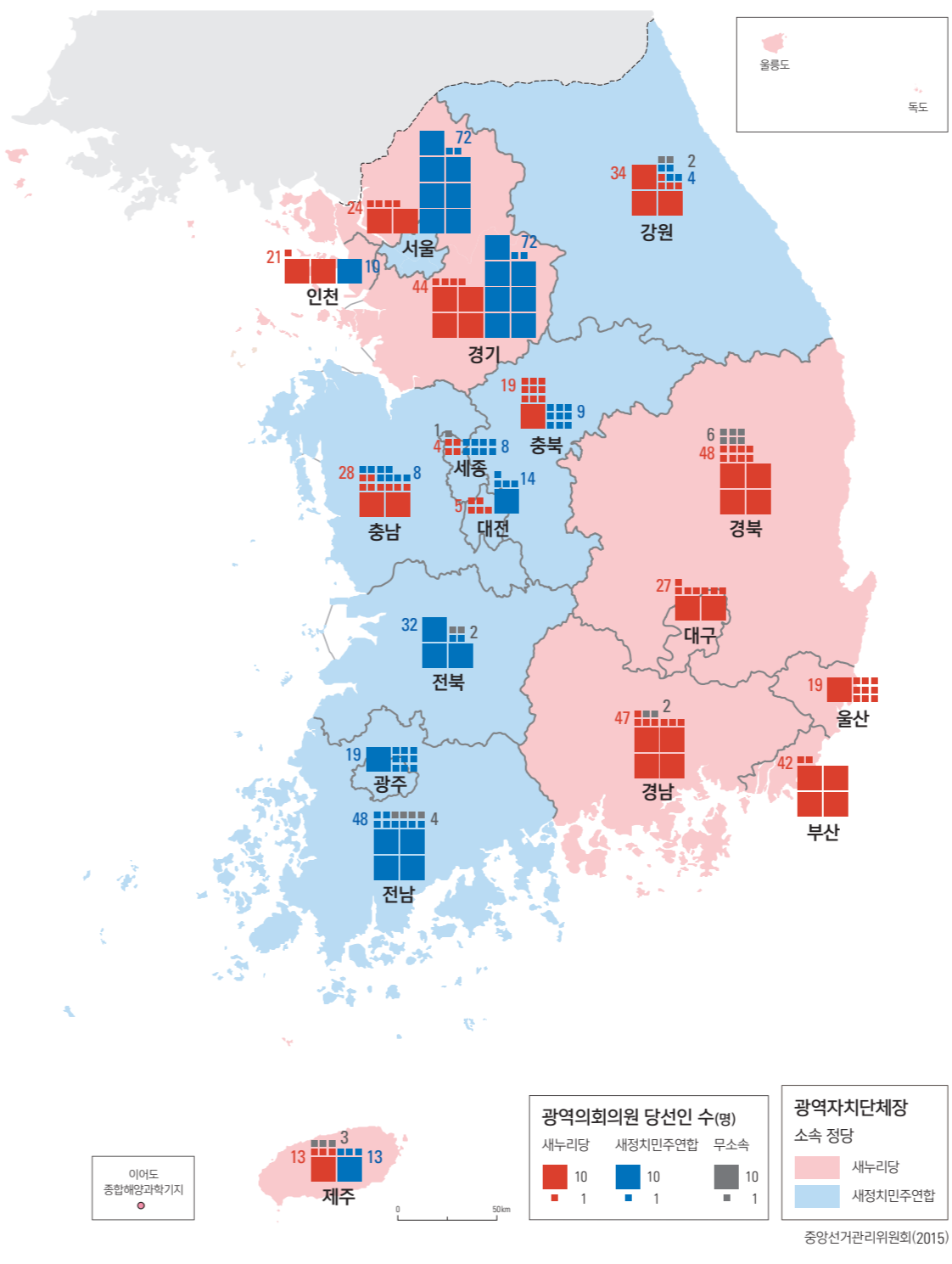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매 4년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지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새누리당 127석, 민주통합당 106석, 자유선진당 3석, 통합진보당 7석, 무소속 3석이었고,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 25석, 민주통합당 21석, 통합진보당 6석, 자유선진당 2석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원선거 역시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투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와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거마다 당선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바뀌기도 한다. 17대, 18대, 19대 선거를 기반으로 당선인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 이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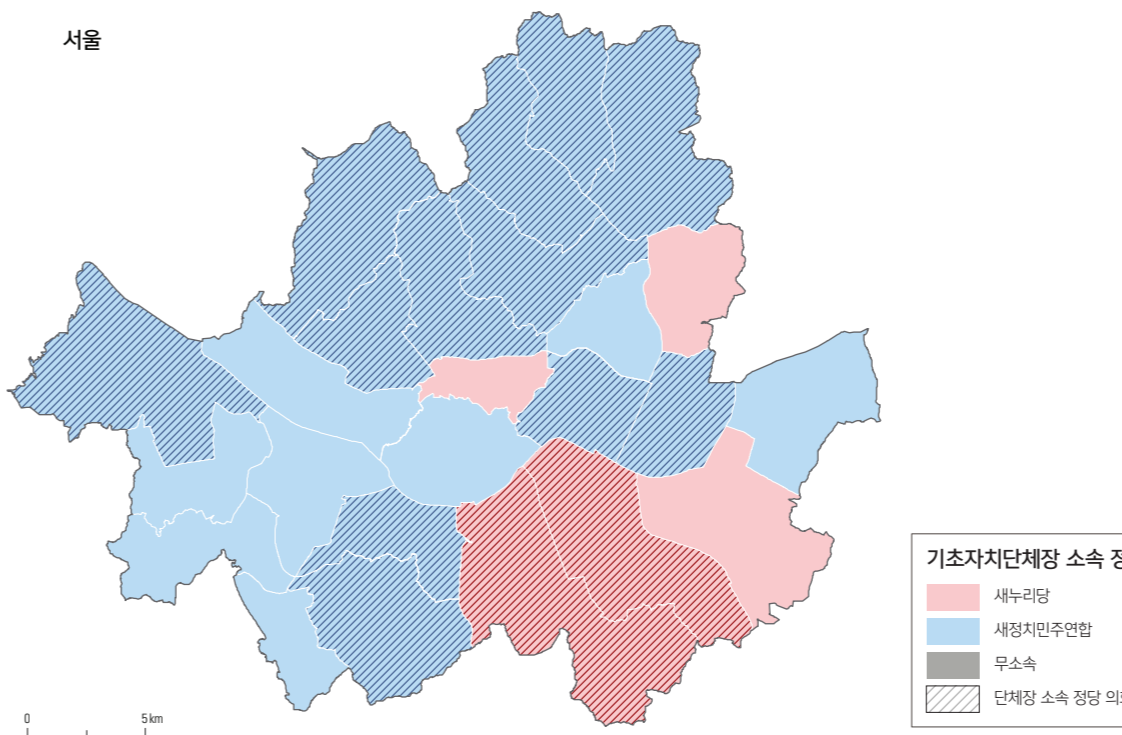


지방 정치와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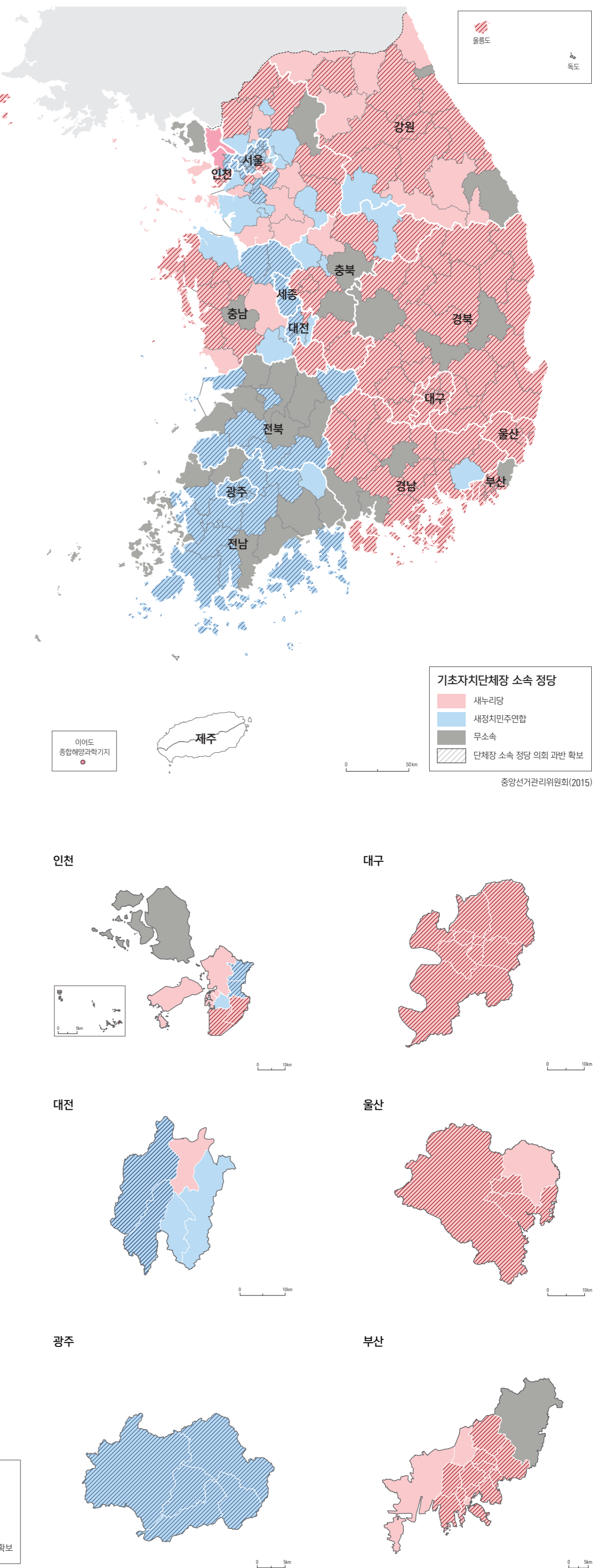
제6회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 결과(2014년)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 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이 선출된다. 이 중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소속 정당을 밝히고 입후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 8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과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인천, 강원,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지역은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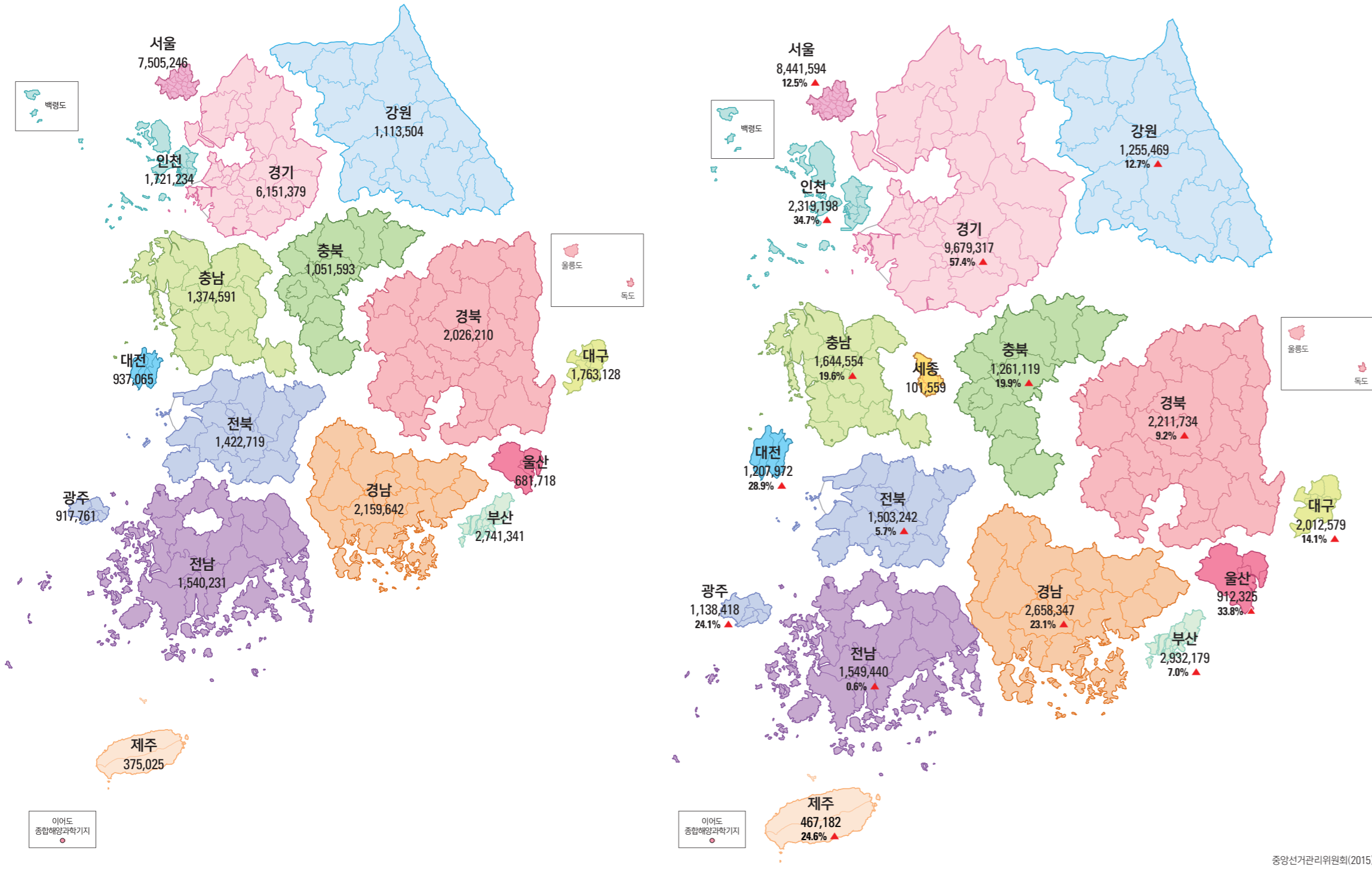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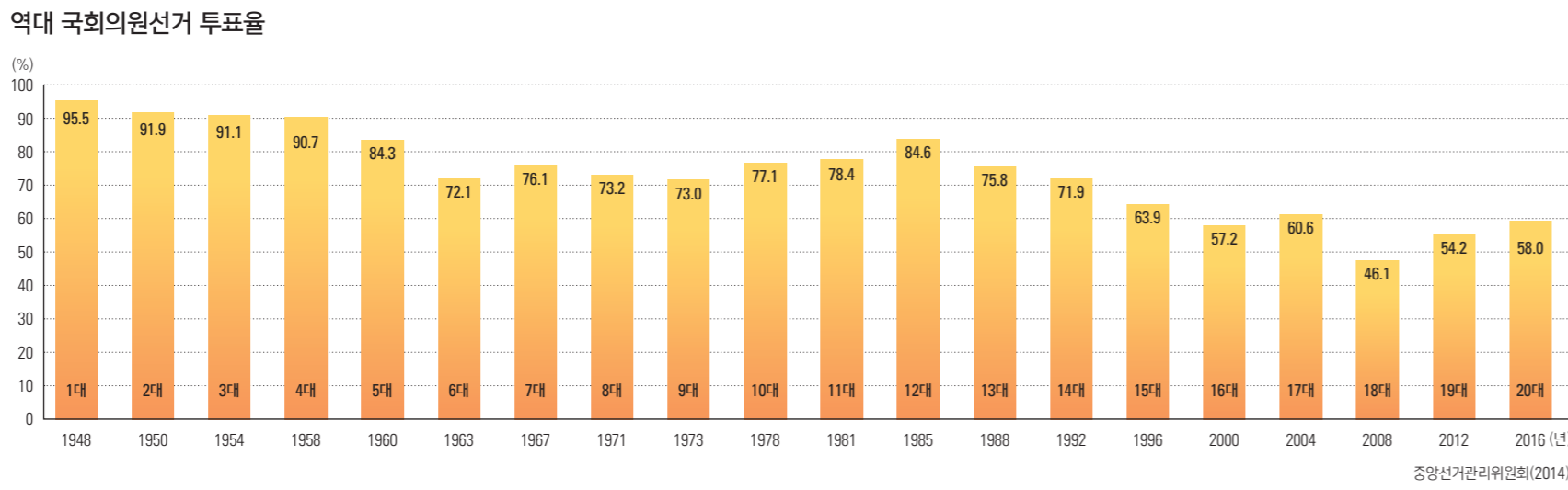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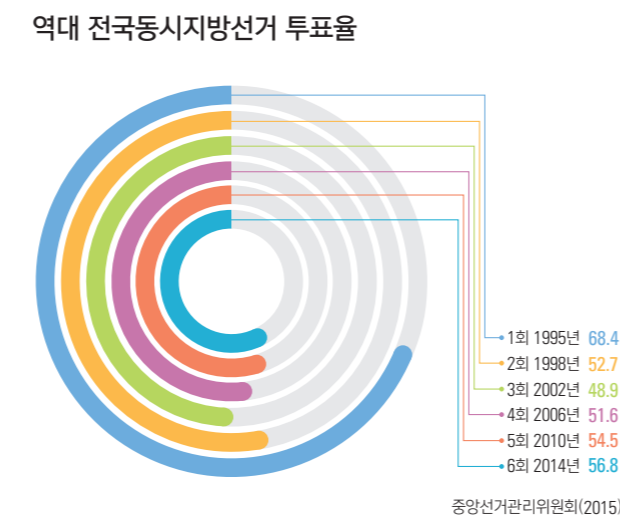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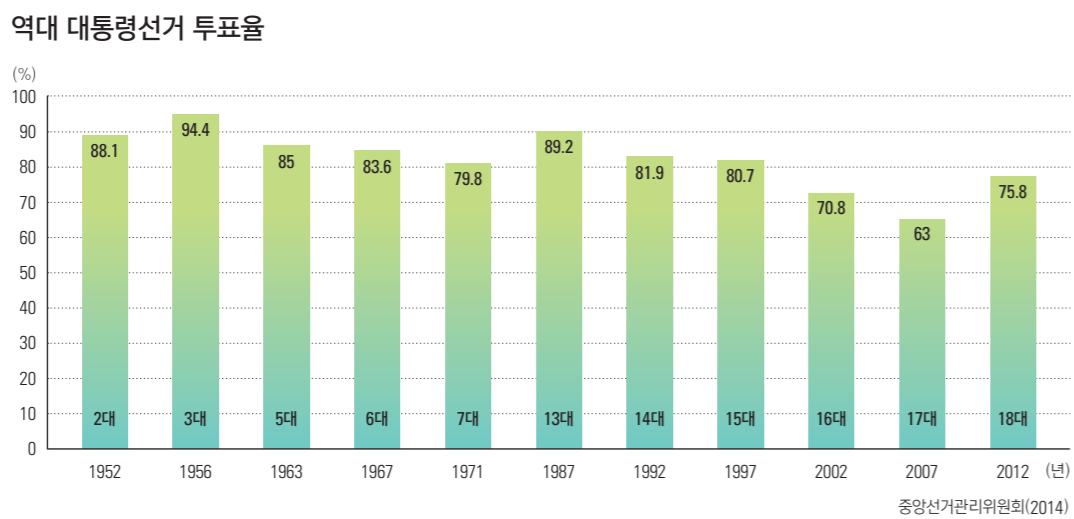


선거인 수 시·도별 변화

선거인 수 변화(2000-2014년)
2000년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선거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만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도 20세, 2005년 19세로 낮아지면서 선거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인 수의 전체적인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2000년 제16대 총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수를 비교해 보면, 15년 동안 총선거인 수는 약 23% 증가하여 2014년 4천 백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선거인 수가 무려 57.4%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 울산,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등도 선거인 수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행정 구역 단위로 이루어졌던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개편이 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의 상한선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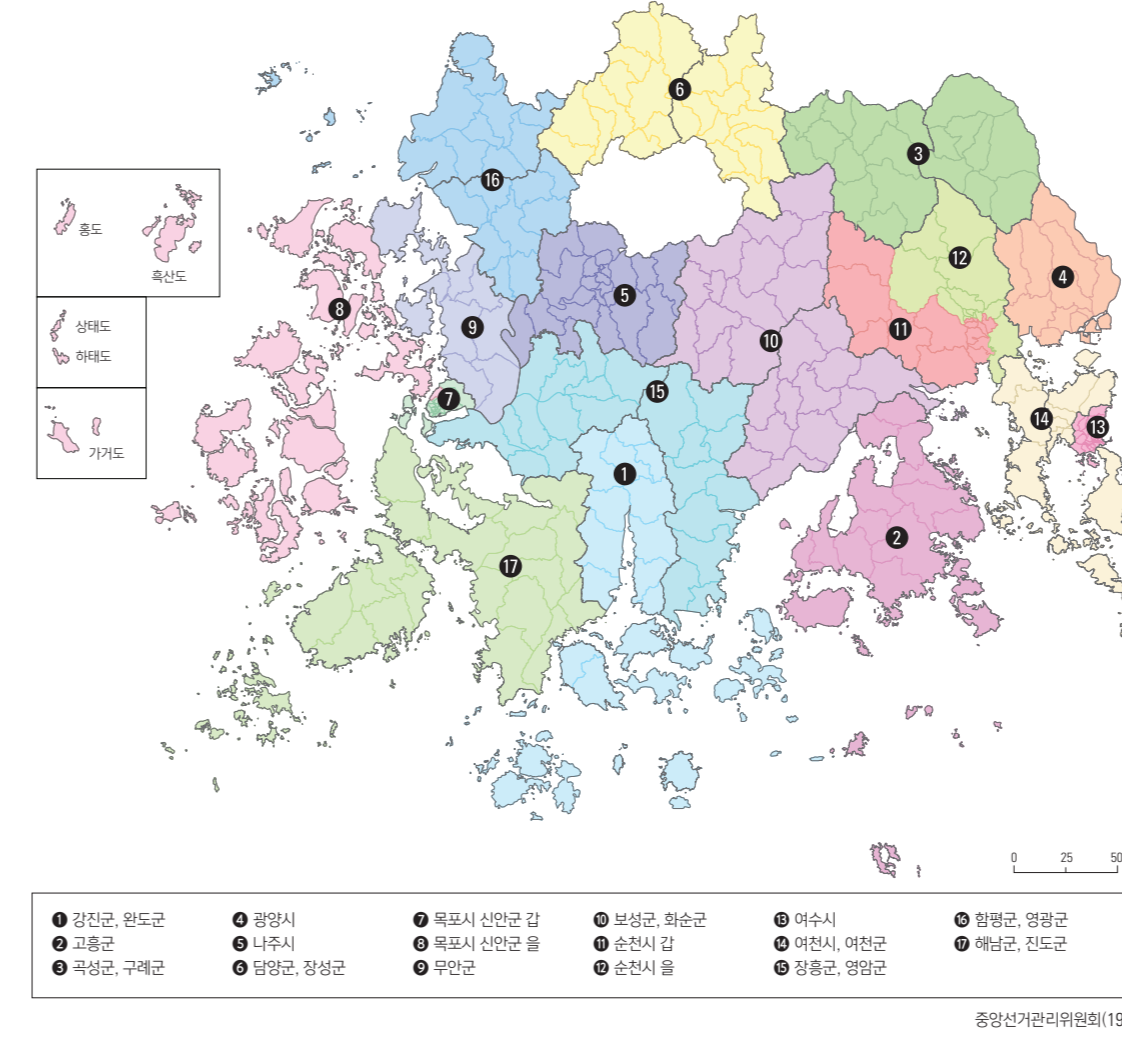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며, 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있다.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며, 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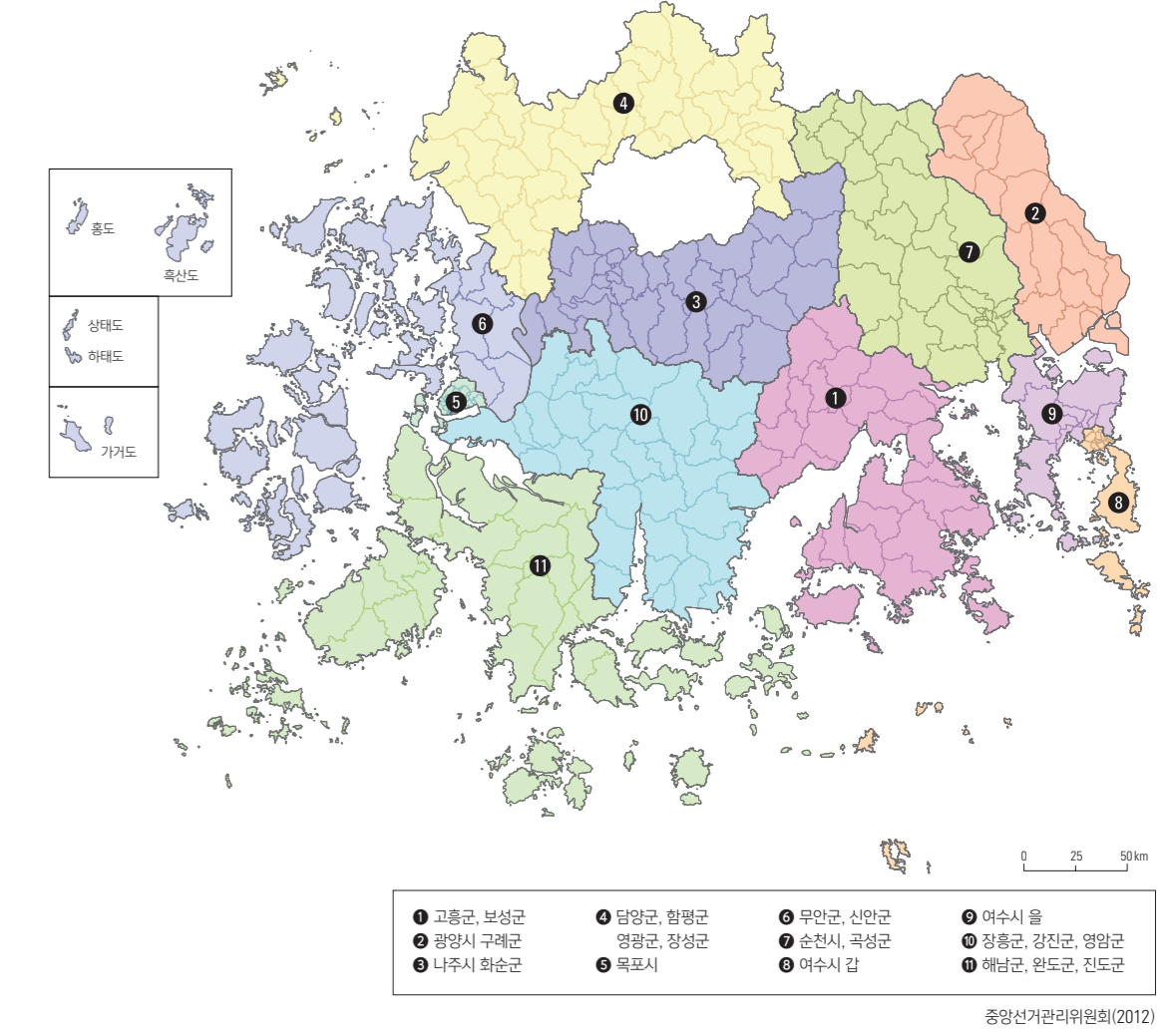
또한 최근 선거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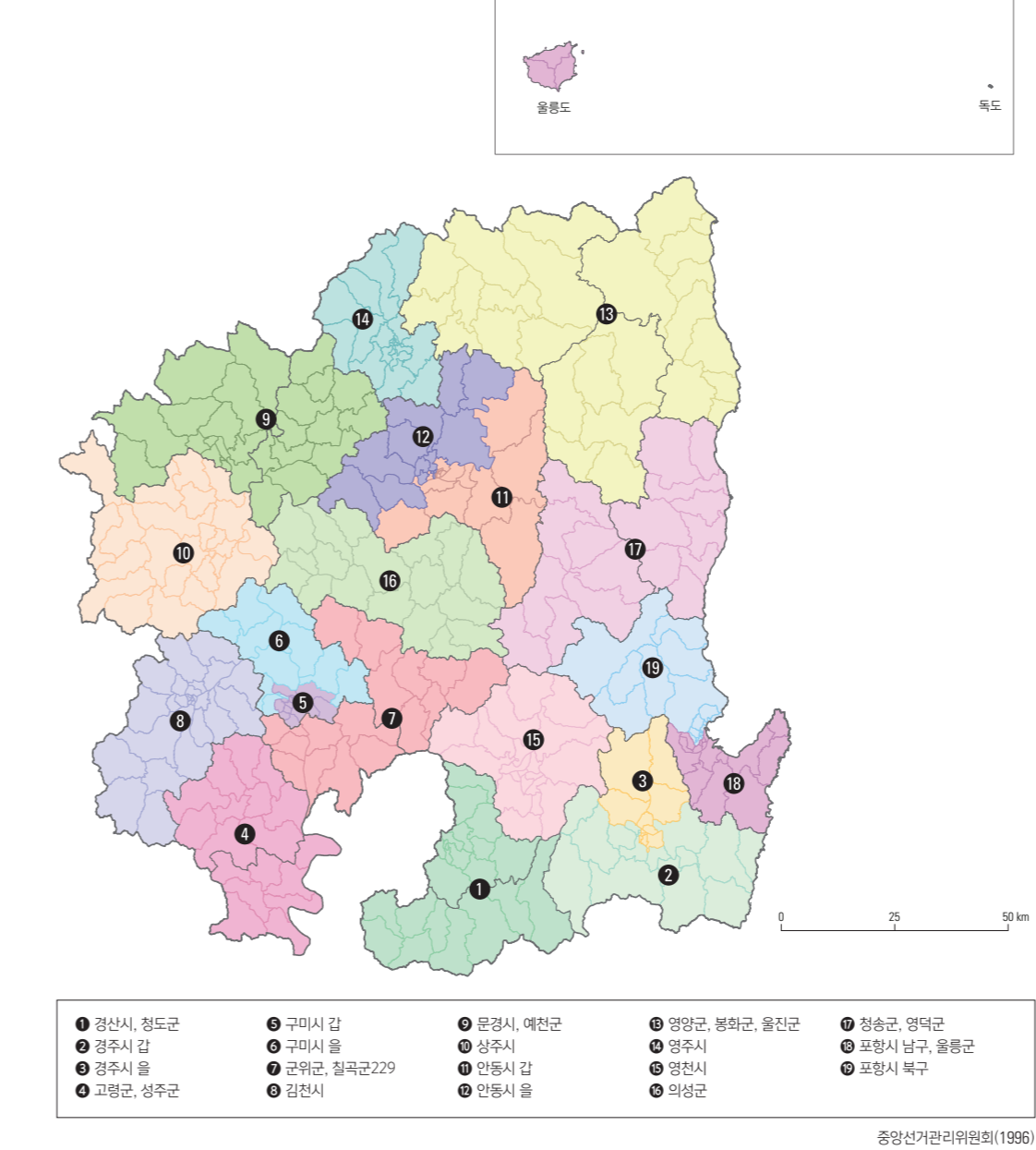
제15대 국회의원선거(전남,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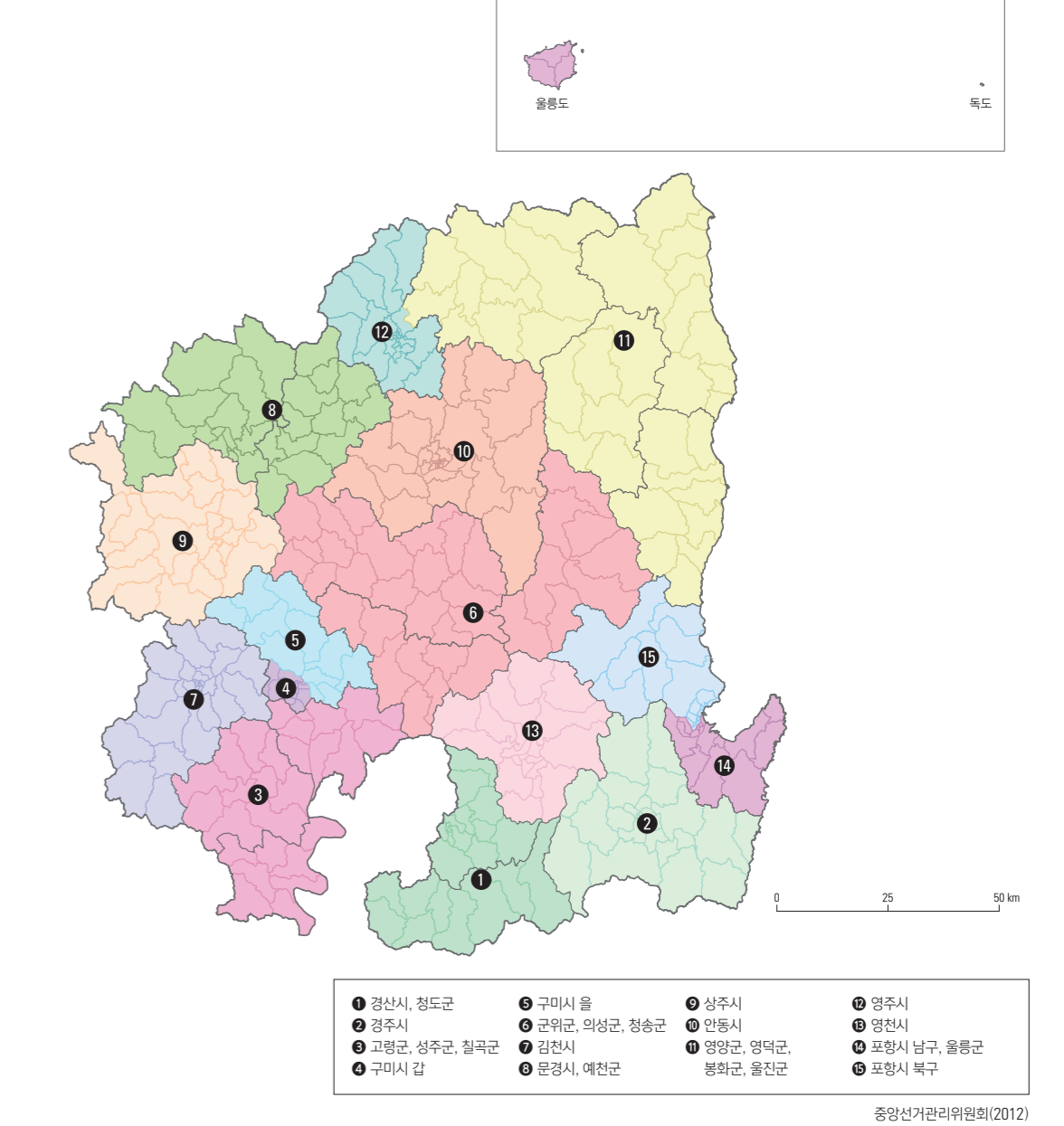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전남, 2012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경북, 1996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경북, 2012년)



국회의원선거구와 의석 수 변화

구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구 총의석 수	비례대표 총의석 수	국회의원 의석 수
제15대 총선(1996년)	47	21	13	11	6	7			38	13	8	13	14	17	19	23	3	253	46	299
제16대 총선(2000년)	45	17	11	11	6	6	5		41	9	7	11	10	13	16	16	3	227	46	273
제17대 총선(2004년)	48	18	12	12	7	6	6		49	8	8	10	11	13	15	17	3	243	56	299
제18대 총선(2008년)	48	18	12	12	8	6	6		51	8	8	10	11	12	15	17	3	245	54	299
제19대 총선(2012년)	48	18	12	12	8	6	6	1	52	9	8	10	11	11	15	16	3	246	54	300
선거인 수 변화(%) (1996-2012년)	13.4	8.7	17.4	39.9	32.2	39.3	-	-	74.4	16.1	23.7	23.1 (29.3)	7.4	1.2	11.6 (-3.0 (29.8))	25.2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선거인 수 변화를 29.3% ·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선거인 수 변화를 29.8%